

복숭아 생산기반 현대화 주력

임실군, 8억 8000만원 확보 친환경 과원 관리·영농자재 지원 사업 등 추진

임실군은 외국산 농산물 수입개방에 맞서 과수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숭아농가 생산기반 현대화사업에 주력한다.

군은 8억 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임실군조합공동법인'에 등록된 농업법인과 FTA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IP 사업(친환경 과원관리), 생산기반 사업(관정개발, 스프링클러 설치, 지주 시설 등), 복숭아 선별기 지원, 영농자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과수 재배농가들의 영농환경을 개선하여 고품질 과수 생산과 함께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명품 복숭아 생산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군은 과수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숭아농가 생산기반 현대화사업에 주력한다.

고 가격 하락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과수농가가 생산한 과일 중 비선호 규격화 과일을 별도로 선정, 대기업 납품을 통해 잼이나 주스 등으로 가공한다.

아울러, 군은 과일을 임실치즈 및 유기농제품과 연계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매실,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임실에서 생산되는 열매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 군민 20%가 자원 봉사자

군 자원봉사종합센터, 1만 1900여명 97개 단체 가입

고창군이 '참여와 나눔'의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월 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을 고창군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원봉사자로 가입한 군민은 고창군 전체 인구의 약 20%인 1만 1900여 명이다.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는 총 97개 단체로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센터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도·농간 교류로 지역 일손부족의 문제해결 기회를 제공하는 봉사여행이 함께하는 불려투어 사업, 이·미용, 네일아트, 귀반사 등의 전문 기술을 익히고 봉사하는 전문이동봉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 내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 증진을 위해 새내기 봉사단 지원, 찾아가는 자원봉사 박람회 운영,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포함한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 등을 진행해 어려서부터 자원봉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 교육을 통해 분야별 역할을 키운 자원봉사자들은 각종 행사와 축제장에서 음료봉사와 안내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을 홍보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소외계층 도배 및 장판 교체, 연탄 배달, 집 고쳐주기 등 어려운 이웃에게 내미는 희망의 손길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고창을 만드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숭선수범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전 공무원이 연 2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군민은 언제든지 고창군 자원봉사종합센터(063-560-8008, 063-562-1600)로 연락하면 함께 참여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립임실호국원, 식목일 행사



국립임실호국원, 식목일 행사

국립임실호국원은 5일 제7회 식목일을 맞아 호국원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식목 행사를 가졌다.

이번 식목 행사에는 느티나무 170여주를 다목적 광장과 묘역 인근에 식재하였으며, 호국원으로 가꾸기 위해 묘역 내에 목련, 진달래, 단풍나무, 꽃양귀비, 수레국화, 백일홍 등 호국원이 공원화될 수 있게 조성해 가꾸고 있다.

또한 인공폭포, 연못, 정자 등 휴게 공간을 마련해 유가족과 참배객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준태 국립임실호국원장은 "국립임실호국원을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국민들이 늘 즐겨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호국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기자

순창 향가오토캠핑장 야간 경관 아름답게

군, 9억 투자 정비 착수... 향가목교 LED 조명·향가터널 모빌 설치 등

순창군 향가오토캠핑장이 야간 LED 경관 조명 설치를 통해 밤 경관이 아름다운 특색 있는 캠핑장으로 변신한다.

군은 최근 섬진강 향가오토캠핑장 정비 사업을 본격 착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사업에는 총 9억원을 투자한다. 군은 이를 통해 지난해 문을 연 향가오토캠핑장 주변의 불거리와 체형거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우선 향가오토캠핑장의 명물인 향가목교에 야간 LED 경관조명을 설치한다. 향가목교는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교각을 활용해 자전거길로 만든 독특한 관광자원이다. 군은 목교에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LED 파노라마를 설치한다. 또 자전거를 탄 모습을 영상화한 야간조명도 연출한다. 군은 캠핑족들이 밤 늦게까지 활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야간 불거리 창출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군은 향가터널 내부에 새 모빌을 설치해 자전거 라이딩 시 새들과 함께 달리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벽면에 자전거를 탄 모습의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한다.

를 활용한 벤치도 만들어 책도 보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도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다양한 포토 존 설치도 특징적이다. 향가오토캠핑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벽 포토 존을 만들어 활용한다. 캠핑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침낭 포토 존, 고양이 쥐 개를 활용한 포토 존 등 다양한 포토 존을 만들어 가족들이 추억을 간직하게 할 계획이다. 산책로에는 인디언들의 아이템인 드림캐처를 활용한 특징적 게이트 조

남원시, 해빙기·봄철 도로정비

남원시는 지난 2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도로면 안전점검 정비를 통해서 낙석 및 도로면 구조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겨울철 잦은 강설과 해빙기 등 결, 융해 현상 등으로 파손 및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포장도로 재포장 및 도로표지판 등 도로시설물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봄철을 맞이하여 상춘객들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 해빙기 및 춘계도로정비를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은 시 관내 진입 고속국도 및 국도와 지방도 등 연결도로를 포함 총 56개노선에 418.9km이다. 특히 시에서는 도로포장의 파손 및 변형여부와 구조물의 파손, 침하 여부 및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인해 퇴색한 차선 도색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면 배수불량지역의 배수시설 정비와 도로 비탈면 낙석 및 배수로 퇴적토 제거, 도로표지 정비 및 불법점용시설물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특히 국지도 60호선 주천면 육묘장에서 고기삼거리와 지방도 737호선 '정령치' 구간은 전라북도과 공동으로 낙석 및 사면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작년 보다 사흘이나 앞당겨 3월 28일 차량 통행금지를 해제시키는 등 시민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경찰, 대형교통사고 예방 활동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는 5일 아침 8시경 컨싱턴리조트에서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위한 전세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잠시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꽃생추위가 물러나면서 봄꽃 축제 등 나들이객이나 학생들의 수화여행과 현장 체험이 늘어나고 있어 나들이철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승용차량 운전자에게 대해 음주잠시를 통해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출발 전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과 버스 하차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학생·학부모 육군사관학교 입시설명회

순창군은 5일 향토회관에서 관내 지역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학년도 육군사관학교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입시설명회는 육군사관학교 김경배 중령(생도산발파장)이 진행했다. 김중령은 학교 소개에 이어 육사 교육 체계, 생도생활, 졸업 후 진로, 2017학년도(77기) 육군사관생도 모집요강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특히 이날은 2017학년도 변화된 입시정보를 발 빠르게 접할 수 있어 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시험준비에 큰 도움을 줬다.

이날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교 3학년 임모군은 "군 생활이 쉬울 것 같진 않지만 더 큰 꿈을 가지고 리더십을 갖춘 대한민국의 멋진 장교가 되는 꿈을 꿀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황숙주 육전장학회 이사장은 "순창군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사관학교 최종 합격생을 2명 배출하였으며 올해는 더욱 많은 학생이 사관학교에 합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순창의 젊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명품교육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사관학교는 올바른 국가관 확립 리더십 함양 전문지식 습득 및 활용 능력 배양 창의적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정신력과 체력양상을 교육 목표 표로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으로서 우수한 교수진과 최첨단 교육시설을 갖춘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순창=구인규 기자

고창군, 농업인 블로그마케팅 교육 다음달 24일까지 야간반 운영

고창군이 소비자들의 구매 트렌드에 맞춰 농업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온라인을 통해 보다 손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블로그마케팅 역할을 기르는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

5월 군에 따르면 SNS를 활용해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블로그마케팅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다음달 24일까지 매주 월·화요일 희망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2개반으로 나누어 반별 8회씩 총 16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정보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농업기술센터는 바쁜 영농철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교육을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의 야간반 교육으로 마련했다.

강의는 해리광 대표 김성환 강사가 초빙되어 블로그마케팅 전반에 대해 기초부터 꼼꼼하게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블로그 마



고창군은 SNS를 활용해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블로그마케팅 교육을 시작했다

케팅 실력 배양으로 자신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온라인에 홍보하고 소비자들과 소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창군은 SNS 전문가 과정으로 농촌개발대학 스마트마케팅과(40명)를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블로그 마케팅 기초, 중급반, 스마트폰 활용반, 페이스북 교육 등 농업인의 수요에 맞춰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팀(560-8831)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막바지 방제 총력

임실군, 매개충 우화 전 15일까지 피해목 방제처리·이동 저지

임실군이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구축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우화 예측 모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오는 21일 전남 광양, 경남 김해에서 매개충인 수염하늘소의 첫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5일까지 최근 에 고사증상이 나타난 피해목은 예방 방제단을 활용해 즉각 방제처리하고 누락된 고사목은 시공 측에 보완 조치하는 등 방제구역 내 고사목은 빠짐없이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무주국유림관리소와 MOU를 체결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구역 공동 방제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전국적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인 수염하늘소의 첫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5일까지 최근 에 고사증상이 나타난 피해목은 예방 방제단을 활용해 즉각 방제처리하고 누락된 고사목은 시공 측에 보완 조치하는 등 방제구역 내 고사목은 빠짐없이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무주국유림관리소와 MOU를 체결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구역 공동 방제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전국적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인 수염하늘소의 첫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5일까지 최근 에 고사증상이 나타난 피해목은 예방 방제단을 활용해 즉각 방제처리하고 누락된 고사목은 시공 측에 보완 조치하는 등 방제구역 내 고사목은 빠짐없이 처리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